

아나바다 시절단상

6월의 첫주 망종절(芒種節)이 지나가며, 보름 뒤에는 일년중 가장 낮이 긴 시점인 하지절(夏至節)이 다가옴을 느낀다. 일광절약시간제도를 적용하는 미국에서는 해가 지는 시간이 더욱 늦어져, 저녁 8시가 되어도 아직 환하고, 새벽도 일찍 오는 듯 하여, 여름이 아주 깊어감을 새삼 느껴본다. 한국달력은 5일자에 망종 즉, 보리나 밀 등을 수확하고 모를 내며 벼를 심는 시절임을 전통적 농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아울러 ‘세계 환경의 날’임도 주목하게 한다. 그 다음날이 현충일이고, 6.25 전쟁 75주년을 연상시켜준다. 한국은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삼아,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열사와 전몰장병 등 호국영령들을 기리며 명복을 빌고, 유족들을 위로하며 보훈의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갖는다. 조국 분단의 쓰라림을 새삼 되새기면서 개선과 치유를 위한 방법과 평화통일을 끊임없이 모색해나가야 할 때이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75년전 6.25.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남한에서는 이 무렵 농번기를 즈음하여 적지 않은 수의 국군장병들이 봉사휴가로 고향에 돌아가 모내기 등 일손을 돕도록 정부와 군대가 배려했다고 하며, 북한은 그런 사정을 남침을 하는 때로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쟁을 하다가도 씨뿌리고 모내며 가꾸는 시절에는 휴전을 작정하기도 한다던데, 민중이 생업에 한창 바쁜 때에 살상의 공격을 시작함은 만인 공노할 패악질임이 분명하게 느껴진다. 아무튼, 당시에 전사한 장병들은 물론, 개국 이래 순직 열사들과 호국에 헌신한 선조들께 새삼 감사하며 보답하는 길을 찾아 나서야 할 줄 안다. 그분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고국의 역사와 문화를 거듭 되돌아보고, 더욱 발전시켜서 미래의 자손들에게 잘 물려줄 공리를 하여야 함은 선열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일 것이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환경회의를 기점으로 정해졌고, 한국에서도 1996년부터 법정기념일이 되어, 지구의 환경보호와 관련한 정책을 추구함에 동참한 줄 안다. 근래에 더욱 심각해진 세계적 기후변화를 체감하며, 지구환경 생태적 위기를 공감하면서, 이는 한 국가와 민족을 넘어선 인류 공통의 운명을 좌우할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해졌다. 유럽 등지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탄소중립과 같은 기후 환경 국가적 캠페인은 잘 알려져 있는데, 국제적 위상으로 보아 세계적 지도력을 보여야 할 미국이 최고지도자나 그 소속 당의 자국이익우선 정책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듯한 불안감도 없지않은데, 한국에서도 며칠전 대선을 통해 새로 출범한 이재명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구 환경적 공동목표 실현에 더욱 솔선수범하기를 바라고 기대해 본다.

지난세기말부터 한국에서는 “아나바다”운동이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는 줄 안다. 이는 “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다시쓰자”는 말의 네마디 앞글자들을 가리키며, 영어로서는 CSER (Conserve, Share, Exchange, Reuse)로 통한다고 한다. 제한된 지구자원 절약 및 부족한 분들과 공유하며 필요한 것들을 서로 교환하고, 중고품들을 재활

용하자는 자발적 경제활동으로 환경치유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고귀한 노력이다. 이는 개인이나 가정의 살림살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와 지구적으로 필요하고 선한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요즈음 사회마다 빈부격차가 커지고 자원낭비 및 플라스틱 등 환경 건강 오염상태가 심각한 현실에서, 유엔에서도 강조하는 바, 인류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가 우리 모두의 책임과 의무로 부각되는 즈음, 아나바나 운동은 매우 필요하고 권장될 것으로 본다. 새것을 많이 쓰는 이 보다 오랜 것을 아끼고 다시 활용하는 이가 더 훌륭하고 바람직하다는 성숙한 가치관이 존중되어야 할 때이다. 예로부터 사치와 낭비는 악덕이고, 검소와 절약은 미덕으로 전해진다. 앓고 있는 지구를 살리고, 모든 생명들이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 확고한 신념과 능동적 실천의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각자 살림살이를 살펴보고, 몸소 행동에 나서야 한다. 아나바다 천세! 지구환경 만세!